4. 이 지역을 빛낸 체육인

1) 남승룡(南昇龍)

1912년 11월 23일 순천이 낳은 세계적인 마라톤선수이자, 전남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남승룡은 저전동에서 태어났다. 달리고 싶고, 친구가 좋아 부모님의 강력한 서당교육을 마다하고 학교교육을 받고자 했던 그는 순천공립보통학교(현 순천남교) 학생 시절 외사촌형(정종호)이 운동회에서 일본인들과 경쟁, 마라톤 1위를 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 것을 보고 마라톤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인 담임 후꾸나가의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 그 길로 나가 세계 최고가 되어라."는 가르침이 마라톤 인생이 시작되었던 동기였다.

순천보통학교 6학년 때 1928년 경성에서 열린 제6회 조선신궁경기대회 전남예선에서 5000m 1위, 1만m 1위, 1929년 조선신궁경기대회 본선 마라톤 2위, 1931년 조선신궁경기대회 예선 1위, 1932년 전일본마라톤선수권대회 1위, 1933년 극동선수권대회 1위, 1934년 일본건국제마라톤에서 1위를 했다. 1935년 메이지대 2학년 때 일본건국기념 마라톤대회가 동경 시내에서 열렸는데 끼어든 자동차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으나 경기를 마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한남아의 끈기를 과시하면서 선두를 차지하였다. 1936년 제11회 올림픽 마라톤 최종예선전에서 남승룡 1위, 손기정 2위, 스즈끼 3위, 시아끼가 4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 선수가 각 나라당 3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조선인 1명만을 출전시킬 속셈이었지만 마지못해 조선인 2명, 일본인 2명을 후보로 정하였다. 개막 3일 전 현지에서의 재선발전에서도 손기정 1위, 남승룡 2위, 시아끼가 3위를 차지함으로써 이들 3명이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였다.

1936년 8월 9일 56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남승룡은 30㎞ 지점까지 17위였으나 비스마르크 언덕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1위 손기정(2시간 29분 19초 올림픽 신기록), 2위 하퍼(2시간 31분 23초)에 이어 2시간 31분 43초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그후 1936년 10월 25일 고향인 순천에 금의환향하여 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일본에서 학업을 마치고 1940년 4월 용산철도국에 취직한 후 소갑순과 결혼하였다. 해방을 맞은 이듬해 교통부로 직장을 옮겨 근무하였으며,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 코치 겸 선수로 참가하여 10위에 오르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최상래 전남대 초대 총장의 주선으로 1953년 전남대에서 후진 양성에 몰두하였다. 1956년 전남대 주최로 충무공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를 열어 전남 마라톤을 국내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공헌을 하였다. 전남대의 제자로는 송길윤(보스턴 마라톤 3위)·김연범·김해룡 등 국내 최고의 마라톤선수들을 육성하였다. 4·19혁명 직후 남승룡은 8년간의 전남대 생활을 청산하고 상경하였으며 그와 때를 같이하여 전남대의 마라톤 열기도 사라졌다.